

편목의 수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vel of Cataloging

°김상미, 남태우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Kim Sang-Mi, Nam Tae-Woo

Dept. of Lib. & Inf. Sci., Chung-Ang Univ.

1876년 Cutter의 개념을 계승한 AACR2R의 편목의 3수준은 오늘날과 같은 전자환경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편목의 다양한 수준에 관해 논의하였다. 최소수준목록(Minimal level Cataloging)은 영미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미의회도서관과 OCLC에서 표준으로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핵심수준목록을 대표하는 PCC(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의 핵심레코드(Core record) 표준은 최근들어 모든 수준의 도서관에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인터넷자원의 표현을 위한 더블린코어와 PCC 핵심레코드의 데이터요소를 비교하여 공통데이터요소와 비공통데이터요소를 도출하여 인터넷환경에서 새로운 핵심수준 서지기술 데이터요소를 제안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1. 서론

1841년 Panizzi가 91개 편목규칙을 만든 이래로 편목규칙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정보자원이 대량으로 존재하는 전자환경에서는 기존의 목록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목규칙을 개정하는 측면은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편목규칙은 새로운 형태의 정보자원이 출현할 때마다 그것을 편목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정과 새로운 규칙의 부가로 인해서, 편목작업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고비용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미의회도서관과 OCLC, 연구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은 최소수준목록(MLC: Minimal Level Catalog)과 핵심레코드(Core Record)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표준을 제정하였다. 또한 OCLC/NCSA는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화된 DLO(Document-like objects)를 위한 더블린코어(Dublin Core) 메타데이터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목록의 비용-효과를 효율적으로 거둘수 있는 미의회도서관의 핵심레코드와 인터넷자원을 기술하기 위해 제안된 더블린코어 메타데이터의 기술요소를 비교 분석하여 오늘날과 같은 전자환경에서 문헌, 특수매체 및 인터넷자원을 포괄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서지레코드의 수준에 대해서 논의한다.

2. 서지레코드 기술요소

2.1 AACR2R의 서지기술요소

서지기술은 도서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는 것이다. 서지기술의 기본원칙은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고 어떤요소가 어떤 순서로 와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AACR2R에 나타난 서지기술요소는 기본적으로 서명저자사항, 판사항, 자료특정세목사항, 발행배포사항, 형태기술사항, 총서사항, 주기사항, 표준번호와 입수조건사항 등이다(AACR2R 1988).

Kumar는 목록의 기입에 포함되어야 할 서지기술 수준은 도서관의 종류,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이용가능성, 문헌의 성질, 목록의 기본성질 등에 준해야 하며, 비용이 고려되는 경우 최소한의 서지기술만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세부적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했다. 서지기술요소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문헌의 특정요소만을 선택해야 하며, 표제, 판차, 출판년도로 충분하다고 하였다(Kumar & Kumar 1986).

2.2 서지단위 대 문헌단위 서지레코드

서지레코드는 서지단위 혹은 문헌단위로 기술할 수 있다. 서지단위는 특정 저작이 다른 매체형태가 있더라도 서지기술에서 각각 다른 개체로 취급하여 개별적으로 서지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헌단위는 특정저작이 다른

매체형태 즉 영화화 된 것, 각본된 것, 소설화 된 것, 전자자료화된 것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서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인쇄매체가 인터넷상에 전자매체로 출판되어 있는 경우에 서로 연결해서 검색되도록 서지레코드를 기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문헌단위 이론은 전자환경에서 다매체 형태로 출판되는 전자자료의 서지레코드 기술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3. 서지레코드의 기술 수준

3.1 규칙에 나타난 기술수준

1876년에, C.A. Cutter는 사전체목록규칙의 “general remarks”에서 편목의 수준을 간략(short), 중간(medium), 완전(full)수준으로 제안했다. Cutter의 이러한 규칙을 계승하는 현행 규칙인 AACR2R은 1978년의 AACR2에 이어 규칙 1.0D에서 서지기술의 수준을 3수준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도서관의 장서규모와 필요성에 의해 적당한 수준을 적용가능 하도록 배려하였다. 이들 서지기술의 3수준은 다음과 같다(AACR2R 1988).

1) 1.0D1. 제1수준: 기술의 제1수준을 위해서는 적어도 아래에 제시된 요소들을 포함하라:

Title proper / first statement of responsibility, if different from main entry heading in form or number or if there is no main entry heading. - Edition statement. - Material (or type of publication) specific details. - First publisher, etc., date of publication, etc. - Extent of item. - Note(s). - Standard number.

2) 1.0D2. 제2수준: 기술의 제2수준을 위해서는 적어도 아래에 제시된 요소들을 포함하라.

Title proper [general material designation] = parallel title : other Title information / first statement of responsibility ; each subsequent statement of responsibility. - Edition statement / first statement of responsibility relating to the edition. - Material (or type of publication) specific details. - First place of publication, etc. : first publisher, etc., date of publication, etc. - Extent of item : other physical details ; dimensions. -(Title proper of series / statement of responsibility relating to series, ISSN of series ; numbering within the series. Title of subseries, ISSN of subseries : numbering within subseries). - Note(s). - Standard number.

3) 1.0D3. 제3수준: 기술의 제3수준을 위해서는 기술될 자료에 적용가능한, AACR2R의 규칙에 제시된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라.

위와 같이 AACR2R의 3수준은 표제지상에 나타난 정보의 두 번째 발행사항, 대부분의 주기, 다국어 사본 정보 같은 특정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게 할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하게 하는 정도를 허락한다.

3.2 최소수준목록과 핵심레코드

편목의 수준중에서 최근에 편목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편목수준은 최소수준목록과 핵심레코드이다.

1)최소수준목록

1970년대 후반에 미국과 영국의 도서관은 도서관 직원수의 감소 및 예산비용 지출의 압력 등 자원부족에 직면하게 되어 최소수준의 목록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AACR2R의 제1수준에 기반을 둔 최소수준목록은 짧은 목록(short cataloging), 간결한 레코드목록(brief record cataloging), 간략화된 목록(simplified cataloging) 혹은 K-수준 입력, 그리고 less-than-full 목록으로도 알려져 있다. 최소수준목록의 기본적인 전제는 ‘잠재적 이용자를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정보 보다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기술된 형태가 더 낫다’는 것이다. 최소수준목록의 목표는 적절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완전기입목록이 가능한 사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아직 처리되지 않은 백로그(backlog)에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OCLC는 1977년에 최소수준목록 옵션을 발표하면서 K-level(최소수준) 레코드에 필수적으로 기입할 것과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나뉘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했다(Fox & Preece 1991).

1978년에 미의회도서관의 사서위원회는 목록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목록의 효율화를 위해 수행해야 할 3가지 수단에서 최소수준목록을 제안했다. 미의회도서관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최소수준목록을 도입하고 표준으로 사용하였다(Ercegovac 1998).

이러한 MLC 표준은 건축 예산과 백로그 감소에 대한 압력, 최신자료의 신속한 정리유지 등의 목적에 널리 사용되었다.

2)Core Record(핵심레코드)

핵심레코드는 최소수준목록이 비용효과적이거나 제한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1994년에 미의회도서관의 PCC(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에 의해 명세화 된 핵심레코드는 목록레코드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일이 없이, 서지데이터의 기본단위를 정의하려는 가장 최근의 시도이다(PCC 1996). 핵심레코드는 본질적으로 AACR2규칙 1.0D에서 정의된 세가지 수준중에서 제2수준에 기초한 개념이다. 이러한 핵심레코드의 개념은 최대한 양질 이면서 최소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지기록의 표준을 마련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으며, ‘보다 신속하게, 보다 훌륭하게, 보다 저렴하게

(faster, better, cheaper)' 목록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USMARC 사회는 핵심수준 레코드를 도서관 사회에 적용가능한 표준으로 편입시키고 적절한 핵심레코드를 수용하고 있다. PCC 핵심레코드의 특성은 로칼 에이전시에게 더 많은 융통성을 허락하며, 로칼 에이전시의 판단을 강조하는 효율적인 편목수준이라는 데 있다. 최근들어 핵심레코드의 수는 모든 수준의 도서관 관계에서 증가되어 왔다.

핵심레코드의 적용 실례는 다음과 같다.

1	001	96-12355
2	040	CtY \$c Ct
3	042	pc
4	043	e-it--
5	050 01	DG738.29.M374 \$b G35 1985
6	100 2-	Galasso Calderara, Estella
7	245 13	La granduchessa Maria Maddalena

d'Austria : \$ un'amazzone tedesca nella Firenze medicea del '60 /\$c Estella Galasso Calderara.

8	246 30	Amazzone tedesca nella Firenze medicea del '60
9	260 -	Genova : \$b Sagep, \$c c1985
10	300	178 p. ; \$c 24 cm
11	600 00	Maria Maddalena, \$c d'Austria, granduchessa, \$ 1587-1631.
12	651 -0	Florence (Italy) \$x History \$y 1421-1737

3. 핵심레코드와 더블린 코어의 데이터 요소 비교

3.1 더블린 코어(Dublin Core)

1995년 3월,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에서 개최된 1차 워크숍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전자문헌을 표현하기 위한 13개의 핵심요소들을 제안하였다. 이어 2차 워크숍에서 2개 요소를 추가하여 15개의 메타데이터 핵심요소가 정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더블린코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의 형식과 구조를 단순화하여 원문의 저자나 발행자가 메타데이터를 직접 작성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작성된 데이터를 기초 데이터로 하여 특정분야에서 요구되는 상세한 수준으로 확장하여 사용할수 있게 한다. 셋째, 기술대상 자료는 문헌유사자원(Document-like objects: DLO)으로 제한하며, 데이터 요소도 DLO의 탐색을 지원하는 요소들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더블린코어는 전자도서관 환경에서의 서지기술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3.2 핵심레코드와 더블린코어의 데이터요소 비교

기술변화에 대응할수 있는 핵심수준 메타데이터 데이터요소를 제안하기 위해서, PCC가 표준으로 제안하여 널리 사용되고있는 단행본용 핵심레코드의 데이터요소와 인터넷 자원 표현을 위한 더블린코어의 데이터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더블린 코어의 15개 데이터요소와 단행본용 핵심레코드 데이터요소의 매핑결과는 (표 1)과 같다.

비교결과 핵심레코드 표준에 나타난 데이터요소 중에서 더블린코어에 상응되지 않은 비공통 데이터요소는 1) 040 목록작성 기관, 2) 250 판사항, 3) 260 \$a 출판지, 4) 300 형태사항, 5) 4XX 총서사항, 6) 502 학위논문주기, 7) 505 내용주기, 8) 533 복제주기, 9) 8XX 총서부출표목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공통요소들은 현대의 전자환경에서 데이터요소가 추가되어야 하는지 혹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데이터요소의 추가 및 삭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미래 목록수준의 방향

인터넷상의 전자자원 목록의 필요성이 증대되어감에 따라 지금까지의 목록 방향을 변화시킬 시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가까운 미래에 이용자들은 문헌, 특수매체, 전자자원을 망라한 문헌단위 목록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면 도서관은 인터넷자원을 신속하게 기술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존의 AACR2R의 규칙을 적용하여 완전수준으로 편목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도서관은 이러한 변화된 환경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가지 해결방법은 '보다 신속하게, 보다 훌륭하게, 보다 저렴하게(faster, better, cheaper)' 목록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수준 메타데이터 데이터요소를 이용하여 모든 정보자원을 기술하는 것이다. 매년 출판량은 크게 신장되고 있고, 네트워크 정보자원은 놀라운 수준으로 증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목록수준은 새로이 요구되는 데이터요소들은 첨가하고 그렇지 못한 데이터요소는 제거한 비용-효과가 큰 핵심수준목록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목록 환경은 정보기술변화로 재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다.

Dublin Core element	Core Record element
Title	245 \$a 서명 (240통일서명, 246별서명 포함가능)
Creator	100 \$a 기본표목 개인명, 110 \$a 기본표목 단체명
Subject	650 \$a 일반주제명, 050 \$a LCCN(LC 청구기호) 082 \$a DDCN(DDC기호), 086 \$a 정부분서 분류번호 090 \$a 자관 청구기호 (600주제명 부출표목 개인명, 651주제명 부출표목 지명 포함가능)
Description	520 \$a 요약
Publisher	260 \$b 발행자, 배포자
Contributors	700 \$a 부출표목 개인명, 710 \$a 부출표목 단체명 720 \$a 부출표목 비통제명
Date	260 \$c 출판년, 배포년
Type	516 \$a 컴퓨터파일 혹은 데이터 유형 주기
Format	538 \$a 시스템 세부사항 주기
Identifier	010 \$a LC번호, 020 \$a ISBN, 856 \$u URL
Source	786 \$t 원자료 저록
Language	546 \$a 언어 주기
Relation	787 \$n 비특정적 관계 저록(77X, 78X포함가능)
Coverage	513 \$b 자료에서 취급된 시대 주기
Rights	506 \$a 사용제한 주기

(표 1) 더블린코어와 핵심레코드의 데이터요소 비교

첫째, 서지레코드의 기술수준은 1876년 Cutter의 개념을 계승한 AACR2R의 3수준이 기본이 되고 있다.

둘째, 최소수준목록은 1970년대 후반에 영미에서 인력자원 및 예산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표준이다.

셋째, 핵심레코드는 1994년 미의회도서관의 PCC에 의해 명세화된 것으로 '보다 신속하게, 보다 훌륭하게, 보다 저렴하게' 목록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넷째, 더블린코어와 핵심레코드의 데이터요소를 비교한 결과, 9가지의 데이터요소가 비공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모든 정보자원을 통합기술할 수 있는 데이터요소로서 위의 9가지 요소를 부가하거나 제거한 비용-효과적인 핵심수준의 데이터요소가 제안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볼 때, 전자환경에 적합한 편목의 수준은 신속하고 저렴하게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수준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http://lweb.loc.gov/catdir/pcc/coreintro.html>)
(http://www.oclc.org/oclc/bib/2_4.htm)
Cromwell, Willy. 1994. "The Core Record: A New Bibliographic Standard," *LRTS*, 38(4) pp.415-424.
Ercegovac, Zorana. 1998. "Minimal Level Cataloging: What Does It mean for Maps in the Contexts of Card Catalogs, Online Catalogs, and Digital Libraries," *JASIS*, 49(8), pp.706-719)
Fox, Mary Anne & Preece Barbara G. 1991. "Upgrading Minimal Level Monographic Records: A Study and Conclusions," *Technical Services Quarterly*, 8(4), pp.25-35.
Gorman, Michael and Winkler, Paul W. 1988.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Second edition revision.**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p.14-15.
Kumar, Girja & Kumar, Krishan. 1986. **Theory of Cataloguing.** NewDelhi : Vikas Publishing House.
Oddy, Pat. 1996. **Future Libraries Future Catalogues.** London : Library Association Publishing.